

비관세장벽 모니터링(일본/도쿄지사 작성)

I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2021.3월]

1.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 발표

- 일본 후생노동성은 금년도(레이와 3년) 4월부터 적용되는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을 3.26자로 발표하였음
- 후생노동성 본성은 수출국 생산, 제조 단계에서부터 위생관리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의 식품위생관리 규제에 관한 정보를 각국 대사관, 수입자, 수출국 정부 담당자 및 생산자 등에 제공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 본성은 특정국가 또는 지역 또는 특정인이 생산한 수입식품등에서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조 1항 또는 제17조 제2항에 의해 포괄적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다.
- 검역소는 수입신고 내용과 실제 화물의 동일성 여부 확인 검사를 실시하며, 규정에 근거하여 식품등의 규격 또는 기준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 금년도 모니터링 검사계획은 약10만건(전년대비 300건 증가)으로 하며, 수입동향, 검사결과, 건강피해 발생 상황등을 감안하여 모니터링 계획을 재검토한다.
- 처음으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규격기준 및 첨가물등의 사용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수입식품이 법에 적합한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검사항목에 대해 수입자가 자주검사를 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한다.

2. 시사점

- 매년 발표되는 수입식품감시지도 계획에 의거 금년도에도 식중독 사례 발생 방지, 대장균군 위반등의 위생위반사례, 아플라톡신 검사, 병원미생물 등으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임으로 대일 수출시 특히 주의가 필요시 됨

1. 통관동향 등 이슈

- 금년 들어 한국산 신선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위반사례가 연속 발생하고 있어 대일 수출용 신선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 및 수출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임
- 4월 현재, 잔류농약 위반상황을 보면 한국산 깻잎 1건, 신선고추류 5건, 참외 1건의 계7건의 잔류농약 위반사례가 발생됨

2. 변동사항

- 해당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매회 수입시 마다 명령검사(전수검사) 또는 성분에 따라 모니터링 검사 강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각 품목에 대해서 잔류농약 안전성 확인후 수출이 필요함

3. 기타 주의사항 등

- 한국산 고춧가루에 대해서도 홍고추 간이 가공품에 해당되어 잔류농약 모니터링 검사 강화(전체 수입건수의 30%) 조치 상태에 있으므로 사전에 한국내 검사 등 확인후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위반통보일 (년 월 일)	품명	수량 (kg)	농 약 검 출 (ppm)		일본기준	한국기준
			성분명	검출치		
2021.01.15.	들깻잎	100	Indoxacarb	0.02	0.01	20.0
2021.01.19.	풋고추	520	Propiconazole	0.02	0.01	1.0
2021.01.22.	풋고추	790	Hexaconazole	0.07	0.01	0.3
2021.03.17.	풋고추	3,000	Tricyclazole	0.06	0.01	0.01
2021.03.17.	홍고추	100	Tetraconazole	0.4	0.3	1.0
2021.04.08.	홍고추	90	Hexaconazole	0.20	0.01	0.3
2021.04.13.	참외	510	Chlorfenapyr	0.02	0.01	0.5
계	7회 위반	(들깻잎 1, 풋고추 3, 홍고추 2, 참외 1회 위반)				

1. 통관거부사례(3월)

- 신선 청고추 및 홍고추 잔류농약 위반 사례
 - 한국산 신선 청고추 및 홍고추에서 건강을 해칠 염려가 없는 정도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기준치 위반 사례가 각각 1건씩 발생함
 - 청고추 : 트리사이클라졸(Tricyclazole) 0.06ppm(기준치 0.01ppm)
 - 홍고추 : 테트라코나졸(Tetraconazole) 0.4ppm(기준치 0.01ppm)
 - 수출물량 : 총 310박스, 3.1톤
 - 위반일 : 2021. 3. 17.

**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2021.03/ <https://www.mhlw.go.jp/content/000761246.xls>

2. 시사점

- 그동안 핸드캐리로 반출되던 신선 고추류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정상 무역품과 동일하게 잔류농약 검사를 받게 되면서 위반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한일간 잔류농약 기준치가 상이함으로 대일수출시에는 일본 기준치에 맞추어 관리된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것이 중요함
- 금번 위반으로 인해 고추 간이 가공품인 고춧가루에도 동 검사강화가 적용됨으로 고춧가루 수출시에도 주의가 필요시 됨

3.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

- 위반사례 발생 주요 특징
 -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발표자료에 의하면 2021. 3월의 대일수입식품류 위반건수는 84건이 발생함(식기류 제외)
 - 3월중 한국산 식품위반사례는 신선청고추 및 홍고추에서 각기 1건씩 잔류농약 위반사례가 발생하였으며, 기타 가공식품 등의 위반은 없음
 - 각국에서 수입된 전체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잔류농약 및 항생제

등 위반사례가 21건(35.0%),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 부적합, 첨가물 위반이 12건(20.0%), 냉동식품 등의 세균수 초과 및 대장균군 검출 등으로 인한 위생위반이 18건(30.0%), 아플라톡신 검출위반 9건(15.0%) 등으로 나타남

4.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 미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3월의 미국산 수입식품의 위반건수는 24건으로 세계 각 수입국가중 위반건수가 제일 높았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전체 수입식품의 위반율중 40.0%를 차지함. 땅콩, 아몬드 등에서 아플라톡신이 7건, 소맥등에서 변색, 곰팡이균 발생등 위생위반이 17건이 발생함
- 잔류농약 위반사례는 특별히 없음

○ 중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중국산은 신선당근, 냉동 브로콜리에서 잔류농약 위반이 각기 발생함. 땅콩이 들어간 팔제품에서 아플라톡신이 1건 발생하였으며, 냉동콩류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위생위반이 3건 발생 등 총8건이 위반됨

○ 베트남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신선당근에서 잔류농약이 5건이 위반사례로 발생하였으며, 냉동 새우 튀김 잔류농약이 2건 발생함. 냉동연어에서 대장균군 발생한 위생위반 1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위반이 발생함

○ 대만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매실가루(종자포함) 등에서 시안화합물 검출된 2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하였으며, 행인차(코코아 맛)에서 대장균군 양성으로 위반 1건 등 모두 7건위 위반이 발생함

○ 한국산 수입식품 위반사례

- 한국산의 경우 2월에는 위반실적이 없으나, 3월 최신 발표자료에 의하면 신선 청고추 및 홍고추에서 잔류농약 위반이 각각 1건 총2건이 발생하였음
- 청고추 : 트리사이클라졸(TRICYCLAZOLE) 0.06ppm(기준치 0.01ppm)

- 홍고추 : 테트라코나졸(TETRACONAZOLE) 0.4ppm(기준치 0.01ppm)
- 향후 한국산 청고추 및 홍고추에 대해서는 각기 해당 성분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 강화(수입건수의 30%선) 조치가 발동되었기에 수출되는 고추류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가 필요시 됨
- 또한, 고추 간이 가공품인 고춧가루에도 동 검사강화가 적용됨으로 고춧가루수출시에도 주의가 필요시 됨

<표1> 대일 수출 국가별 식품 위반건수



※ 표 왼쪽 숫자는 위반건수임

<표2> 국가별 식품 위반 내역 상세

국가명	위반건수	위반율	잔류농약 및 항균제등	아플라톡 신	위생	첨가물	기타
미국	24	40.0		7	17		
중국	8	13.3	2	1	3	2	
베트남	8	13.3	7		1		
대만	7	11.7			2	5	
타이	5	8.3	2		3		
인도	5	8.3		2	2	1	
이탈리아	4	6.7		1	2	1	
인도네시아	3	5.0		1	2		
스페인	3	5.0	1	2			
말레이시아	3	5.0		2	1		
한국	2	3.3	2				
기타	12	20.0	7		2	3	
합 계	60	100.0	21	9	18	12	0
비율(%)			35	15	30	20	0.0